

四象醫學 治則의 세가지 層次를 논함

崔海英*·金順今*·林惠淑**

治則은 기본이론과 임상을 聯系하는 橋梁이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層次를 劃分하는 문제는 治則의 기본이론 문제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부딪치는 중요한 과제이다.

李濟馬先生저작 『東醫壽世保元』으로부터 四象醫學의 이론기초는 이미 보귀한 자료로 되었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의학가들의 부단한 補充, 完善으로 더욱이 임상 의학자들의 깊은 탐색과 토론으로 하여 이미 계통적이고 완전한 의학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체계는 “天, 人, 性, 命” 整體觀을 이론적 지도로 삼고 “四維之四象” 結構를 주요내용으로 삼으며 辨象論治를 주요특징으로 한다. 원래 전통의학 기본이론의 한가지 학과로 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體質論” 학설이 임상실천에 구체적으로 응용되었으며 부동한 체질의 施治問題를 해결하였다. 그 어떤 정체 사물이던지 모두 層次性和 유기적 연계가 있으며 매한가지 層次는 모두 그 특정의 의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상의학의 治則의 체계도 역시 그러하다. 次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논리가 구체적이다. 辨象論治를 강조하여 일으킨 일련의 治則학설중 높은데로부터 낮은데로 추상적인데로부터 구체적인 높낮은 層次問題가 내포되어 있으며

체질학설의 관점과 原理가 꿰뚫어져 있다. 필자는 아래에 세가지 層次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1. 治療總則 2. 治療通則 3. 具體治則.

1. 治療總則

總則이 바로 治則의 가장 높은 層次이고 그 추상 정도가 제일 높고 사상의학의 치료 고리로 치료원칙의 주요 출발점과 최종점으로 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統領하는 治療, 康復, 豫防, 養生등의 내용이 중의학 이론의 “治病, 必求于本” 《陰陽陰象大論》이라는 중의학의 근본치료, 준칙으로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근본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을 틀어쥐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의학은 “治病求其體質”로서 모든 임상치료법칙, 치료방법, 약물사용, 이론을 개발, 지도하며 “辨象論治”를 匯通하고 사상의학의 독특한 治則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면 “체질”의 內涵된 함의와 실질은 무엇인가? 즉 “人稟臟理有四不同”으로 보고 있다. 즉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을 태양인이라 부르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이라 부르며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이라 부르며 비가 크고

* 연변민족의약 연구소

** 연변 중의의원

신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이라 부른다. 이것은 “天理之變化”의 喜怒哀樂 性情의 “遠散”, “宏抱”, “廣張”, “深確” 및 臟局의 “四偏”을 조성하였다. 이 기본이론을 근거로 한 사상병리학은 부동한 체질은 능히 부동한 발병원인과 병리과정이 나타날 수 있고 (1) 陰陽盛衰 (2) 寒熱多寡 (3) 臟器大小 (4) 情志過不及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사람들 중 매개 체질의 특이성과 偏向性을 계통적으로 서술하였다. 때문에 의학자로서 병을 치료함에 이 “근본”을 떠날 수 없으며 이러한 偏向性을 조절하고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학자들의 질병치료과정이며 매 즉 “治療求其體質”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보면 사상의학의 治則의 이론핵심은 인체의 생리특성에 따르는것이고 陰陽平和을 이루며 장원한 관점과 총체로부터 이 이론을 조절하고 사상의학의 총적 치료법칙을 확정하는것이다.

2. 治療通則

總則이 확정된 후 通則은 진일보 구체적이며 운용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 개발하여 말하면 그 어떤 질병이든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기본준칙이며 보편적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臟腑機體狀態에 근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臟腑功能을 이용하고 격발시켜 (祛際療邪) 병기를 없애는 것이다.

1) 辨象施治는 사상의학의 기본법칙의 하나이며 또 관건적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辨別四種屬象, 判斷濟楚한 다음 그에 속하는 象에 따라 그에 속하는 약물방제를 쓰며 만약 각 象이 감별이 틀리면 그에 대한 臨證이 모두 틀리게 된다.

2) 같은 병에 부동한 象과 부동한 치료가 있고 부동한 병에 같은 象이면 같은 치료법에 있으며 같은 증상에 부동한 象을 부동하게 가감하여 쓴다”. 부동한 병에 같은 象, 같은 치료법”이란 의미는 부동한 질병이지만 오직 환자는 같은 象에 속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면 그 구체 치료 법칙과 치료처방이 거의 같다. 이와 반대로 “같은 병, 부동한 象이면 부동하게 가감한다”는 것은 즉 같은 질병이지만 환자의 인체의 체질상의 차이가 있고 속하는 象이 각기 부동하기 때문에 그 치료법칙도 필연적으로 다르다. 예를들어 말하면 태음인은 “太陰調胃湯”을 가감하여 태음인의 중풍, 해수, 황달 등 부동한 질병을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질 증상이지만 태음인은 “乾栗樗根皮湯”을 쓰고 소양인은 “黃連清腸湯”을 쓰며 소음인은 “香砂陽胃湯”을 쓴다. 이 관점의 기본점이 바로 같은 象에 속하는 환자의 그 臟器의 大小, 強弱은 일치하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의 발생변화의 원인은 臟器의 功能失衡으로 일어난다. 확정된 象에 속하는 방제는 오직 그 象에 속하는 臟器의 大小功能에 따라 調整된다.

3) “큰 것은 削하고 작은 것은 보충한다”, “강한 것은 瀉하고 작은 것은 보충한다” 여기에서 “消”, “瀉”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즉 소약한 의미를 말한다. “大”, “小”는 臟器의 강약을 말하며 음양의 盛衰을 말한다. 그 의미는 기능이 너무 過盛한 臟器는 消弱을 하고 너무 偏衰한 장기에 대해서는 補充을 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칙의 산생도 역시 사상의학의 기본이론에 대해 산생되었다. 사상의학은 질병의 발생, 발전은 바로 臟器시간에 內在因素의 강함과 부족으로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질병치료의 목적은 바로 이런 內在因素의 평형을 一個相對穩定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治療求其體質”은 總則지도하에서 辨別屬象, 臟器의 編盛, 偏衰(大, 小)를 판단하고 “大”(過強)에 대해서는 消弱을 하여야 하고 “小”(過弱)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큰 것은 削하고 작은 것은 보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음인체질은 비장이 작고 신장이 크며 즉 비장기능이 薄弱하고 신장기능이 亢盛하여 소음인은 비장이 허약하기에 복사와 같은 질병에 잘 거리며 임상에서는 養胃健脾를

주요한 치료대상으로 하여 많이 쓴다.

4) 治未病도 근본상에서 인체의 건강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우선 병을 예방하는 사상과 措施일 뿐 만이 아니라 아울러 일찍 치료하고 병이 전염되지 않게 환경이 좋은 곳에 옮기는 등 내용이 포괄되었다. 四象醫學은 정신심리, 사회인소의 작용, 더욱이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성격, 심리, 수양을 통하여 가히 調整한다. 喜怒哀樂정서를 中和시키고 調攝精神, 調整心理, 調節飲食, 勞逸過度, 藥物豫防등 방법을 강조한다. 이 내용으로부터 보면 총칙기초하에서 通利하는 범위이다.

3. 具體治則

치료방법 인소가 함유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病邪立論에 대처하며 계단이 비교적 낮고 구상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針對性이 비교적 강하며 임상의 구체 병종 치료의 규범으로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질병의 구체 치료 법칙을 장악하였고 직접 약물 성질이론, 방제조성이론과 연결되었으며 방제의 건립에 따라 약을 주고 침구하고 안마하는 등등이다.

때문에 구체 치료 법칙은 극히 광범하고 풍부하다. 예하면 태음인의 장기의 특점과 病因病機는“간이 크고 폐가 작다”, “血濁氣溢, 肺虛過燥”, “治病求其體質”, “瀉大補小”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반드시 通利補肺, 瀉肝하는 법칙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태음인의 중풍을 예를들면 補肺丸治法에 調胃續命湯을 쓰고 태음인이 허한 해수에는 補肺止咳治法에 麻黃調胃湯을 쓰며 태음인의 변비에는 和肺通便治法에 勝氣調胃湯등등을 쓴다. 그러나 구체치료방법은 높은 계단의 치료법칙지도 아래에서 제일 낮은 계단의 치료법칙이며 그와 치료방법은 긴밀이 열게 되고 또 구별된다.

사상의학의 임상치료방법은 환자의 (인체체질) 機體體質이 기본이며 變別屬象한 다음 높은 계단의 치료법칙의 지도아래에서 낮은 계단을 락실하며 제일 마지막에 치료방법, 방제약을 접수한다. 오직 전통의학과 구별되는 것은 患病機體를 기본단위로 형성하며 辨象施治의 독특한 치료법칙을 체계로 하며 어떤 사람들은 전통의학의 또 하나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다.